문화포커스 가파도 레지던시 재가동

지역 밀착 문화예술로 화합하는 공간 부활할까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도 161억 투입 시설 중 하나
현대카드 운영에서 손떼자 지난 2월 문예재단에 위탁
기존 자문단 그대로 활용 파일럿 운영 등 벌써 한계

가파도 에어 입구. 지하에 입주 시설, 갤러리 등을 둔 건물로 굴뚝처럼 솟은 부분은 전망대로 향하는 곳이다. 진선희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이번엔 가파도 레지던시 위탁 운영에 나섰다. 재단이 창작공간인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건 제주시 한경면의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한 '예술곶 산양'에 이어 두 번째이고, 외풍을 견디지 못한 채 2년 만에 레지던시 업무를 중단한 '예술공간 이아'까지 합치면 세 번째다. 재단이 언론에 공개한 가파도 레지던시 시설은 기대감 한편에 여러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모습이었다.

가파도 에어(AiR, Artist in Residence)로 불리는 이 시설은 제주도와 대기업인 현대카드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조성했다. 제주도가 모든 예산을 대고 현대카드가 사회 공헌 사업으로 섬에 문화 콘텐츠를 심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가파도 프로젝트엔 2013년 이래 지금까지 총 161억원이 투입됐다.

그 중 가파도 에어는 제주도가 십수 년 방치된 콘도미니엄 공사장을 매입해 현대카드와 함께 재생시킨 공간으로 지하에 5개의 스튜디오와 각각의 침실, 갤러리, 공동 주방 등을 갖췄다. 2018~2019년 운영 기간 동안 국내외 유명 작가 18명이 거쳐갔다. 지난해엔 건물 보수 공사로 입주를 못 했다. 현대카드 측은 작년 1월 제주도에 가파도 에어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1년여 만인 지난 2월 재단에 맡겨졌다.

제주도에서 올해 가파도 에어 운영비(인건비 포함)로 5억1100만원을 지원받는 재단은 9월~11월 현대카드에서 예정했던 국내외 작가 5명을 입주시키는 등 당분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부터 가파도 에어 갤러리에서 예전 입주 작가 중 8명을 초청해 기획전을 열며 새 출발을 알리고 있지만 운영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파도 에어 업무를 유사 시설인 예술곶산양을 관리하는 재단의 서부권사무소가 아니라 정책 기획 부서로 신설된 미래문화팀이 소관하는 점은 조직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런던 테이트모던 큐레이터 등으로 꾸렸던 현대카드의 자문위원단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운영상 혼선도 예상된다. 이 경우 문화전문기관이라는 재단의 자율성이 작동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시설 운영 인력 3명이 섬에 상주하지 못하고 본섬에서 배편으로 출퇴근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몇몇 이슈로 지역민 갈등이 상존하는 가파도가 이 시설의 정상화를 통해 문화예술로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제주도는 현재 가파도 에어만이 아니라 가파도 지역에 위탁했던 '가파도하우스' 6동(6실)을 지난 3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문학 등 창작실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범주민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가파도하우스'는 당초 숙박시설로 지어졌으나 지난 1월 공개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 운영을 멈춘 상태다. 진선희기자

가파도의 기억 창작공간에 풀어내다

'가파도 에어' 위탁 운영
제주문예재단 기획 전시
종전 입주 작가 8명 초청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섬, 가파도에 들어선 창작공간인 가파도 에어(AiR, Artist in Residence). 제주도 위탁을 받아 가파도 에어 운영을 맡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그 시작을 알리는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달 29일 가파도 에어 갤러리에서 막을 올린 '가파도 메모리즈'다.

이번 전시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파도 에어에 입주했던 작가 중 8명을 초청했다. 김기라, 양아치, 장민승, 정소영, 노기훈, 유용예, 고낙범, 김정욱 작가로 대부분 가파도 생활이 처음이었던 이들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섬과 제주에 얽힌 일상, 장소, 자연의 기억을 드로잉, 조각, 사진, 영상 등에 풀어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관람료 무료. 전시장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문을 닫는다. 가파도 에어 주소는 가파리 12(가파로 137-7). 선착장에서 도보로 20여 분 거리에 있다. 문의 794-8079. 진선희기자

갤러리ED 지상전 (12)고윤식의 '오렌지카펫 #1'

오렌지빛 융단에 감귤 농업의 오늘

사진 매체 활용 직접적 표현
유토피아 상실의 근원 탐색

그가 독일 자브리켄 예술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해는 2017년. 서울에서 활동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발길은 고향으로 향했다. 10년 만에 마주한 제주는 어제의 모습이 아니었다. 감귤의 영향이 컸다. 부모님의 일손을 도왔던 어릴 적 감귤밭은 그에게 낙원 같은 곳이었지만 세월의 파고를 넘으며 고통스런 삶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걸 목격했다. 가격 폭락 탓에 3월까지 감귤나무에 열매가 그대로 매달려 있거나 산지 폐기 정책으로 속절없이 버려지고 있었다. '오렌지카펫'이란 제목은 오렌지빛 융단이 깔린 낭만적인 풍경이 아닌, 생명력을 잃은 주홍 감귤이 카펫처럼 과원을 뒤덮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다.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ED)의 'MZ 아트, 뉴 오픈' 기획전에 초대된 고윤식 작가의 출품작 중 하나인 '오렌지카펫 #1'에 그런 사연이 있다. 초록 풀잎과 대비된 채 썩어가는 감귤이 화면을 채운 작품으로 사진 작업을 이용한 포토 믹스미디어 방식으로 드러냈다.

회화 작업을 해온 고 작가가 사진을 매체로 택한 건 좀 더 직접적이고 실감나게 제주에 대한 느낌을 담아내고 싶어서다. 360도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했다. 사진과 디지털 기술을 붓과 물감, 캔버스로 삼아 이야기를 풀어냈다. 무엇을 보여줄지 우선 생각하고 재료나 도구는 그 뒤에 따른다는 작가의 말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작업 열정을 짐작하게 된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토끼, 거북이 등은 동심을 상징한다. 그것들은 제주가 유토피아처럼 여겨졌던 유년의 기억을 소환하는 동시에 현실의 고단함을 부각하는 장치다. '갤럭시', '홀' 연작 등 갤러리 이디에 함께 나온 작품을 포함해 고 작가는 지난해부터 제주의 오늘을 묵묵히 기록하는 작업으로 상실감의 근원을 탐색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산 열대과일과 식자재의 재발견

'기후변화와 제주농업…'
밥상살림 8월 한달 기획전

제주산 바나나, 애플망고, 용과, 패션후르츠, 블루베리, 파파야, 구아바, 생여주, 사탕수수…. 이들 열대과일은 연평균 기온의 상승, 빈번한 국지성 호우, 해양생태계의 아열대종 증가 등 기후위기가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농업회사 밥상살림주식회사가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과 로컬푸드 식자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행사를 연다.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제주담을센터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제주농업, 열대과일 & 로컬푸드' 기획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에서 나오는 열대과일을 알리고 로컬푸드를 활용한 밀키트 제작 등 저탄소 농식품 소비 인식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이어진다. 열대과일이 전시, 판매되고 바나나, 백향과, 커피나무 등 과수도 선보일 예정이다. 세리풀과 협업해 친환경 로컬푸드를 이용한 셰프들의 밀키트 시연과 판매도 이뤄진다.

밥상살림, 한살림제주, 한살림생산자 도연합회는 지난해에도 기후위기 기획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농업의 변화와 전환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채식주간을 운영해 적정소비, 윤리적 소비 방법론도 제안했다. 문의 743-5988. 진선희기자

제주도서예학회 회원전 8월 5일까지 문예회관

사단법인 제주도서예학회가 '필묵여정 12'란 이름으로 제28회 회원전을 열고 있다.

7월 31일 시작돼 8월 5일까지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정기전에는 한글, 한문, 문인화, 서각 등을 펼쳐놓고 있다. 강창화 서예가 등 50여 명의 회원이 출품했다. 1994년 석산묵연회로 창립한 제주도서예학회는 1997년 탐라연서회로 명칭을 바꿨고 2001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전국추사서예문인화대전을 통해 후진 작가를 양성하고, 회원전을 겸해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제서화교류전을 이어왔다. 진선희기자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